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김세중 실장(동향분석실, 3775-9059)
 작성자 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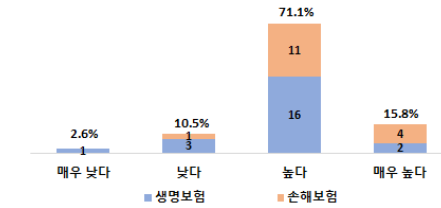
보도 2022. 10. 14(금) 조간부터
 (온라인 10. 13(목) 12:00 이후)
 배포 2022. 10. 13(목)
 매수 총 5매

보험연구원, 『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 CEO Report 발간

“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산업은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,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임”

-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(동향분석실장)과 김유미 연구원은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 진단, 제도 및 환경변화 대응 전략, 영업 전략 변화 등을 조사한 『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 보고서를 발표함
 - 이번 설문은 2022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43일간 진행되었으며, 42명의 CEO 중 38명(생명보험 22명, 손해보험 16명)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90%임
- (경제환경 변화)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 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,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
 -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험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 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가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응답함
 - 대부분의 CEO(86.9%)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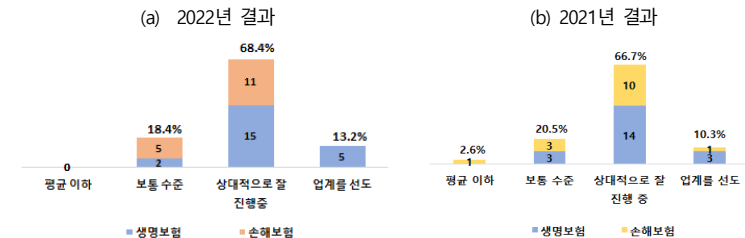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
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- (제도변화 대응) IFRS17과 K-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,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(1200% 룰)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 - IFRS17과 K-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, 준비 수준이 보통을 넘어선다는 응답 비중이 2021년 77.0%에서 2022년 81.6%로 4.6%p 상승함
 -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(1200% 룰)에 대한 평가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36.8%로 높게 나타났으며,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.5%로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23.7%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남

<그림 2> IFRS17, K-ICS에 대한 대응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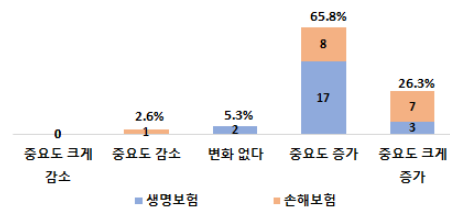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○ **(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)** 대다수의 CEO들이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(예산, 인력 등)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,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함

-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65.8%,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들은 26.3%로, 92.1%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 또는 큰 폭 증가를 예상함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CEO는 71.1%로 나타났으며,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CEO는 없었음

<그림 3>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(예산, 인력 등)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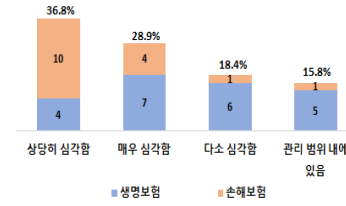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○ **(보험산업 지속 가능성)**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런오프,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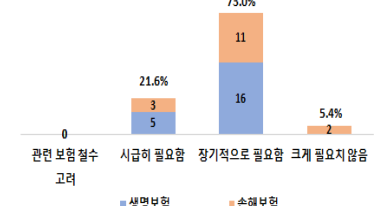
-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비중이 높고,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CEO들의 경우 대부분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함
- 한편, 보험사기 대응 방안으로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, 의료이용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,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,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도 공감함
- 런오프,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3.0%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, 이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제도적 완비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됨

<그림 4>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누수의 심각성 인식
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<그림 5> 런오프,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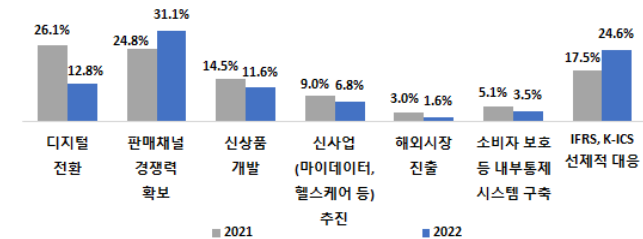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○ **(영업전략 변화)**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전년도 설문 대비 연금보험과 변액보험,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였고, 2022~2023년 중 우선순위 분야로는 작년 대비 판매채널 경쟁력과 신제도 대응 비중이 상승함
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,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,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, 손해보험은 장기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
- 2022~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, IFRS17 및 K-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

<그림 6> 2021~2022년 중 우선순위 분야(순위별)



○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2023년 예정된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전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,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

-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, 저성장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여건에서 보험회사는 성장성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한 상품 전략, 판매채널 전략, 보험금 누수 억제, 사업비 관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한편 IFRS17 및 K-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은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음
- 보험산업은 디지털화, 신사업 영역 확대, ESG대응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므로 2023년에 다가올 다양한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임

첨부: CEO Report 『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